

2023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결과자료집

목 차

여는 글	03
사업 소개	04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아카데미	08
고양시 작은도서관 모임	12
양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28
전국 작은도서관 모임	40
춘천시 작은도서관협의회	58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기금	70

여는 글

2023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이 끝났습니다.
도서관문화재단 씨앗이 만들어주신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기금' 으로 운영된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는 2017년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이용자를 만나던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은 새로운 공부에 도전했습니다.

문화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본 공부가 끝난 뒤에는 더 나아가 문화다양성을 공부하고, 한나 아렌트를 공부하고, 비독자를 연구하면서 작은도서관의 세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는 '스스로' 라는 단어를 덧붙여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누군가 기획한 공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스스로 하는 공부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4년째 이어지던 공부가 2023년에도 계속됐습니다.

신청 단위수는 예년에 비해 적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환경으로 바뀌면서 작은도서관 운영이 바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선정단위는 적었지만, 내용만은 다른 어느 해보다 알차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가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므로, 지역에 관한 공부와 작은도서관의 변화에 대한 공부를, 지자체도, 관계자들도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지만,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보기 위해 공부를, 대단위 아파트 단지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지역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부를, 변화의 시대에 맞게 새로운 시각으로 작은도서관을 보고, 시각을 확장시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 공부를 하는 멋진 사람들이 진심으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부는 각 개인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는 상수값이라고 합니다.

그 변화에 맞추어 작은도서관의 정체성을 다잡고 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한다는 것을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를 통해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고, 그 고민은 작은도서관을 성장시켰습니다.

힘들었던 공부의 길을 함께 한 모든 작은도서관 도반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공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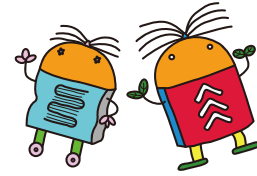
2023.12.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1. 사업 소개

1세대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Child and Small Library Association



■ 사업 목적

-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는 작은도서관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교육사업이다.
- 스스로 교육을 기획, 진행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기획력과 실행력을 높이고, 작은도서관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다.
- 교육내용과 결과를 일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작은도서관의 교육과정과 변화를 알린다.
- 공통주제를 중심에 둔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와 연대를 지원한다.
-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전체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한다.

■ 사업기간 : 2023년 6월 ~ 2023년 11월

■ 사업내용

1) 주요내용

- 지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 네트워크가 스스로 기획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내용

- 아카데미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 현장 실사와 컨설팅을 통한 교육지원
- 아카데미 결과발표회를 통한 교육내용 공유

3) 전체 사업비 및 지원 규모

- 단위별 최대 2,500,000원
- 10개 단위 내외 지원 예정

4) 진행 일정

2023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일 정	내 용	비 고
5/8(월)~5/19(금)	신청서 접수	
5/25(목)	전문가 심사	
5/26(금)	선정결과 공고	
5/30(화)	사업설명회	비대면 진행
6/9(금)	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6/16(금)	사업비 교부	
6/19(월)~10/31(월)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진행	
6월~10월 중	현장 실사 및 컨설팅 진행	
10/31(화)	사업 집행 종료	
11월 중	결과발표회 진행	
	자료집 제작	
11/30(목)	정산 자료 및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 시 안내

※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2. 사업 접수

■ 접수기간 : 2023년 5월 8일(월) ~ 2023년 5월 19일(금) 18:00

■ 지원자격 : 지역협의회 등 작은도서관 관련 단체 및 네트워크 또는 3개 이상 작은도서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7인 이상의 모임 및 네트워크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제출(kidlib@smallib.org)

· 메일 제목에 신청단위명 필히 기재 (예. OO시작은도서관협의회)

■ 제출서류 : 신청서(별첨1), 사업계획서(별첨2), 신청 명단(별첨3)

3. 심사 및 발표

■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사업의 타당성 및 적합성	작은도서관 교육에 합당한 내용인지 여부
사업의 공정성	작은도서관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인지 여부
사업의 연대성	지역과의 연대성, 작은도서관 간의 연대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사업 실현 가능성, 예산의 현실성, 주체의 자발적 참여 및 역량 등
사업의 공평성	유사사업, 유사지원 중복 여부 고려

■ 결과발표 : 2023. 5. 26(금)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4. 유의사항

- 사업 완료 후에 정산 자료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후 제작되는 자료집의 원고를 협회로 제출해야 하며, 원고와 사진의 저작권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있습니다.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설명회와 결과발표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운영 계획 변경 시, 사전에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와 논의 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문의처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02-388-5933)
- 문의 가능 시간 : 오전 11시~오후 5시



2023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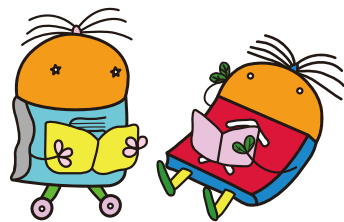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아카데미

2017년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구 분	내 용
1~16강	작은도서관 밖에서 작은도서관을 보다
17~24강	작은도서관 안에서 나를 보다

2018년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번호	선정 단위	내 용
1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독서문화기획 어떻게 할까?
2	광주	한 책 함께 읽기
3	양산	꿈의 나라를 떠다
4	인제군작은도서관협의회	작은도서관의 이해와 실제
5	서울	강무황작가와 함께 하는 그림책 깊이 읽기
6	구리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7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책읽는 문화형성, 선진지탐방
8	파주	그림책 놀이터
9	청주 초롱이네도서관	"나비"나 스스로 비상하다
10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작은도서관, 청소년에게 다가서다



2019년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번호	선정 단위	내 용
1	경기북부 모당공원작은도서관 외 30개관	작은도서관 중독자들의 벽돌책 깨기
2	서울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힐링 워크숍(나는 왜 작은도서관인가?)
3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	구리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4	대구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외 7곳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5	서울 강북구 내 작은도서관 5개소	드디어 북큐레이션을 배우다
6	울산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들의 유쾌한 작당
7	서울지부 작은도서관 흥부네그림책도서관 외 47곳	스스로 책 한 권
8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외 3곳	퍼실리테이션 하자

2021년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번호	선정 단위	내 용
1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서울지부	함께하는 기적의 글쓰기
2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배움과 실천의 "스스로" 아카데미
3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대구지부	연택트 시대와 작은도서관
4	충남 홍성작은도서관모임	함께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5	은평작은도서관사람들	문학, 그림책으로 만나다
6	구리시 작은도서관협의회	그림책으로 하나된 만남
7	모당공원작은도서관 외	책으로 세상을 읽다, 나를 보다
8	서천 여우네도서관 외	희망을 품은 봄바람같이
9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인천지부	돌아보다, 바라보다, 내다보다
10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	'스스로' 채워나가는 진정한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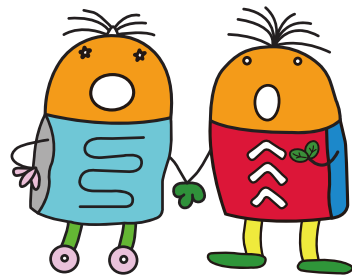
2022년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번호	선정 단위	내 용
1	경기/구리시 독서동아리 네트워크	독서의 지평을 넓히는 아프리카 소설 읽기
2	경상/울산 및 작은도서관 모임	나는 도서관 랩퍼 꿈꾸는 도서관 비트로 말해 봐
3	경기/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책으로 다시 생기를 찾는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북큐레이션
4	강원/춘천 작은도서관 모임	춘천 작은도서관들의 새로운 모색
5	인천/인천 작은도서관 모임	뜨거운 'Singers' 내가 작은도서관이다-This is me
6	서울/서울 작은도서관 모임	나를 꺼안는 글쓰기 - 글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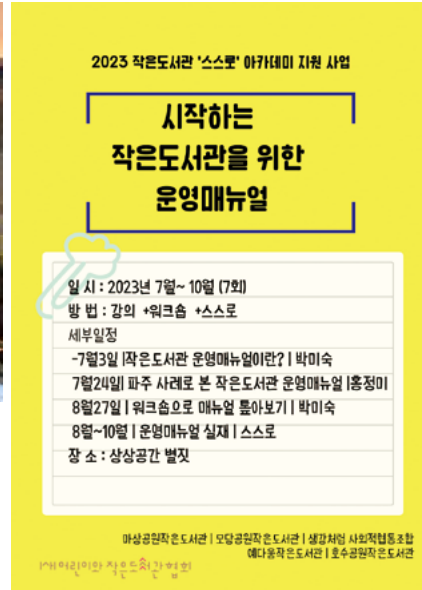


2023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고양시 작은도서관 모임



‘시작하는 작은도서관을 위한 운영매뉴얼’



1. 소개

누가 모였나

2023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 '시작하는 작은도서관을 위한 운영매뉴얼'은 고양시 작은도서관 4개관 그리고 생강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했다. 먼저 마상공원작은도서관은 주변에 숲이 있어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세대를 위한 독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모두의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모당공원작은도서관은 경의선이 지나는 철길 옆 공원에 위치해 특별한 운치가 있다. 아파트 단지를 마주하고 있어 끊임없이 이용자가 드나드는 작은도서관이다. 생강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과 여러 공동체 활동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며, 예다움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으로 책으로 사람이 이어지는 공간이 되길 꿈꾼다. 호수공원작은도서관은 일산호수공원 안에 있으며 서쪽으로 지는 해 질 녘 풍경이 멋진 곳이다. 도서관 위치의 특성을 살려 자연을 주제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배경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충분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시작하는 작은도서관을 위한 운영매뉴얼'을 기획했을까. 그 배경에는 현재 각자의 작은도서관을 한번 돌아보고 고민하는 과정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에서 독서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작은도서관을 보는 시선도 과감하게 담아보자는 의견이 잘 맞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서 시작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나 활동가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을 쉽게 여긴다거나, 만만하게 생각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것과 이왕 시작할 거라면 잘 하도록 격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배경에 동의했으니 절반의 시작은 이룬 셈이다. 모두 바쁜 사람들이라 일정 조율이 제일 힘들었다. 오전과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도 상관하지 않고 7차시 과정이 진행되었다.

방식과 과정

방식은 워크숍과 강의 그리고 목차를 나눠 집필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논의하고 의견을 나눈 시간은 드러나지 않는 과정이다. 이것을 '왜 시작 했지'라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다. 첫 강의부터 내가 생각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철학과 목표는 무엇인지 질문이 시작되었다. 각자 운영하고 활동하는 작은도서관의 목적과 그 도서관을 소개하는 문장을 적어봄으로써 운영매뉴얼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그 내용의 고민도 더해졌다. 시작하는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단순히 이렇게 저렇게 운영한다는 과정을 담는 것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의 철학과 목표를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힘든 작은도서관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파주시의 운영매뉴얼 제작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집중한 부분과 놓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들었다. 사례를 듣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대략의 가이드 라인은 짚을 수 있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각자 전국의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중 한 개씩을 선택해 공부하고 그 매뉴얼의 특징과 꼭 필요한 부분을 공유했다. 특이한 점과 아쉬운 점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제작할 운영매뉴얼에 어떤 내용을 채울지 아이디어를 모았다. 작은도서관 역사를 넣어야 한다는지,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전 지식을 묻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도 나왔다. 꼭 들어가야 할 목차를 정하고 집필할 부분을 담당해 초안을 쓰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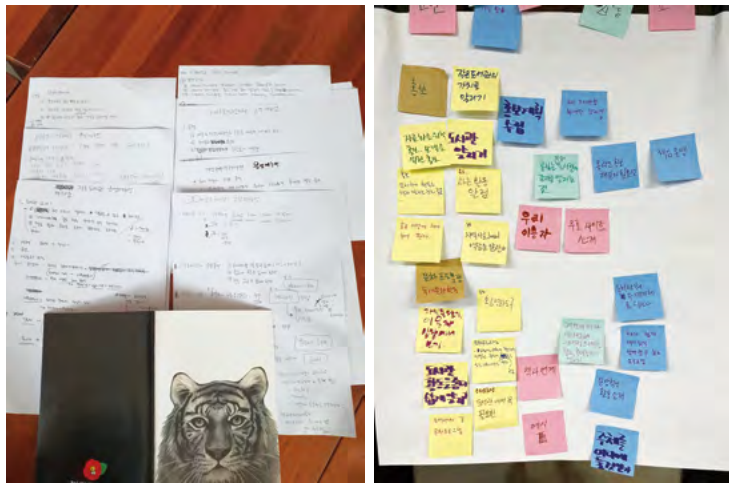
초안을 들고 모였다. 이때 초안에 대한 신랄한 논의가 이뤄졌다. 용어 정리부터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지 도통 이해되지 않기도 했다. 그 이유는 워크숍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각자의 기준으로만 운영매뉴얼을 보았기 때문이다. 일명 '포스트잇 폭탄의 날'로 불려진 워크숍을 통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왜 운영매뉴얼을 만드는가, 정확히 누구를 위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그 가치와 내용을 끝없이 적고 붙이고, 또 적고 붙였다. 진행 강사의 재 질문과 대답, 그리고 분류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씩 정리가 되었다. '시작하는 작은도서관을 위한 운영매뉴얼'에 무엇을 담을지 가시적인 내용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명의 의견을 들으며 방향을 잡아갈 수 있었다. 우리는 그날을 몇번이고

얘기할 것이다. 우리의 의지와 집념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이제는 각자 고뇌의 집필 과정이 남았다. 작가의 마감에 대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다. 마감일을 맞추기 위한 고심과 걱정이 단체 대화방에 하나둘씩 올라왔다. 각자가 쓴 부분을 올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내용도 읽어야 했고 또 수정의 과정이 이어졌다. 글의 톤을 맞추고 마지막까지 단어 선택을 고민했다. 답아야 할 것은 답지만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강조할 사항을 어떻게 재밌는 포인트로 넣을지 세세한 것까지 아이디어를 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체크 체크'와 '희희선배 한마디'다. 시작하면 끝을 보는 두려움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서로 믿었기에 가능했고 마침내 완성할 수 있었다.

마무리

공식적으로 모인 횟수는 7회. 시간으로 계산하면 22시간. 8명이 함께 했으니 총 176시간이다. 여러 사람들의 시간과 체력과 두뇌가 모인 운영매뉴얼이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미래의 기능도 달라질 것이기에 운영매뉴얼도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고 보완되어야 한다. 이 '시작하는 작은도서관을 위한 운영매뉴얼'을 읽는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얼마든지 그 몫을 해 주기 바란다.



2. 스스로 아카데미 진행 후 공부계획과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또 해야 할 것인가. 쉽게 계획을 쓰지 못하겠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었기에 심화된 내용을 담은 운영매뉴얼을 만들게 될 것 같다. 여기에 더해 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운영매뉴얼을 만들고 싶은 작은도서관 사람들이 모여 직접 'OO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사업으로 진행해도 좋겠다. 운영매뉴얼은 한 사람이 똑딱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3. 참여자 후기

가장 짧은 내용을 쓰는데 혼자서 안드로메다와 지구별 사이를 누빈 거 같다. 많은 분량을 맡으신 분들은 오죽할까. 혼자서는 절대 엄두가 나지 않을 일을 같이하는 이들이 있어 마무리까지 왔는데. 바쁜 중에 모두가 애써 차린 밥상에 살짜기 끼어들어 균침을 흘린다. 오구오구 귀여운 자료집이 나올게다.

▶ 김연희(호수공원작은도서관)

'시작하는 작은도서관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처음엔 진짜 가볍게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럴 줄 알았으면~' '작은도서관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굳이 왜~' 이런 말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힘든 것은 다 마찬가지로인데 너무나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에 힘을 냈다. 올해 가장 힘든 일 한 가지와 가장 보람된 일 한 가지를 꼽으라면 나는 '시작하는 작은도서관을 위한 운영매뉴얼' 만들기를 꼽고 싶다. 그만큼 힘들기도 했고 보람도 있었다는 애기다. 부디 이 책을 벗 삼아 씩씩하게 시작하는 작은도서관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 김은미(마상공원작은도서관)

도서관 운영의 기본이란 무엇일까?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될까?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내용이었음에도 여러 번 만나고 수정을 거듭하다 보니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다. 정리를 마치고 난 후에는 '새로 시작하는 작은도서관을 위한' 운영매뉴얼'을 만들어 보자고 했던 마음과 달리 도서관 운영의 기본을 돌아보는 공부라 되어 결국 '나를 위한 스스로 아카데미'가 되었다.

▶ 김정희(모당공원작은도서관)

이토록 작은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이 매뉴얼을 위해 모였던 모든 순간들이 감동이었다. 막막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작은도서관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문장 한 줄, 단어 하나까지 고민했던 뜨거운 마음, 시작하는 작은도서관을 진심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부디 전달되기를. 작은 역할로나마 함께할 수 있었음에 참 고마운 시간이었다.

▶ 김희정(예다움작은도서관)

2023년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시작하는 작은도서관을 위한 운영매뉴얼> 작업은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다니며 커 왔던 작은도서관에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서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된 시간이었다.

▶▶ 박선혜(생강처럼 사회적협동조합)

거절을 잘 못하는 나는 스스로 늪에 빠질 때가 많다. '스스로 아카데미'도 그렇다. 믿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해보자는 말에 덩석 물었다. 그리고 고민과 부족한 능력 사이에서 이 분들 덕분에 빠져 나왔다. 고민의 힘든 과정이 '시작하는 작은도서관을 위한'이라는 단어에 묻혔다. 우리 또한 그 시기에 함께 옆에 있는 도서관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지 않았나. 스스로 또 함께. 이 사업의 매력이고 그래서 기쁘다.

▶▶ 백정희(에다움작은도서관)

이런 이런~, 도서관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막상 글로 만드는 작업은 만만한 게 아니다.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많은 공부를 했다. '스스로'의 과정을 경험하며 조금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결과물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도서관들에 또 누군가 매뉴얼 통해 '스스로' 성장하기를.

▶▶ 신현미(생강처럼 사회적협동조합)

2023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지원사업

시작하는 작은도서관을 위한 운영 매뉴얼

함께 한 도서관
마상공원작은도서관 모담공원작은도서관 에다움작은도서관
호수공원작은도서관 생강처럼 사회적협동조합

누구나 시작은 있다



- 01 "작은도서관? 왜 그 어려운 걸 하려고 하는데?"
- 02 "쉽지 않다고 말해줘야지. 무턱대고 시작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 03 "정말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 04 "작은도서관 그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01 교육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이란?

박미숙 일산도서관장



01 회의

1차회의외

실행계획서 검토 수정
기존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_자료분석

- 작은도서관운영매뉴얼(2015. 문화체육관광부)
- 2022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_(사)공공도서관협의회
- 2019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부천시 작은도서관-공립 편지)
- 웅인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아산시)
- 의왕시 시립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매뉴얼



01 교육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이란?

도서관마다 달고자 하는 철학이 있고
그 내용들이 운영매뉴얼에 반영



자신이 문헌고 있는 작은도서관,
혹은 만들고 싶은 작은도서관을 소개하고 목적 써보기.
소개와 목적은 7인 7색

02 교육

파주시 사례를 통해 본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홍정미 파주중앙도서관 협력사서



파주시 사례를 통해 본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매뉴얼의 필요성

- 준비나 고민 없이 시작하는 작은도서관 사전 방지 역할
- 일관성 있는 정보 전달 오류 방지
- 지원 방향 정리 및 공유 효과
- 일상적 반복적 내용에 대한 참고 자료
- 업무 시간 외 논의 시 참고 자료
- 파주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장 지침서가 되는 매뉴얼

매뉴얼 제작 과정

- 협력사서와 작은도서관이 매뉴얼 필요성에 대한 합의
- 검토시간은 충분히 확보해야
- 제작 예산 편성
- 다양한 사례에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매뉴얼의 방향

- 예비 등록 주체와 신규 작은도서관을 염두에 둔
- 고민의 필요성 인지: 작은도서관 매뉴얼을 보며 적임감을 갖게 하기 위함
-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내용
- 운영법 특수성을 현장 운영자를 통해 안내
- 제작과정 중 담당 부서 내부 교육시 유용
- 현장의 경험있는 활동가들과 협업

신규 작은도서관 주요 문의사항

- 사업자 등록방법/ 등록요건 등
- 정관작성법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도서관리 프로그램
- 전문화활동 운영
- 지원금
- 대표자 선정, 개관시간 등등

검토한 운영매뉴얼 나누기



파주시 사례를 통해 본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진행 시 어려웠던 점

- 가치관의 차이
- 업무 및 업무 분담 시 원고 편차, 분량 배분 등
- 시작할 때 기본사항을 논의
- 예)사전 매뉴얼 원고에 대한 수정을 허락 받아야 함
- 내부조직과 민간활동가들의 입장 고려해야

고려사항

- 작은도서관의 사전 요구 사항을 다양한 방식을 수렴
- 이해자 참여
- 운영법 자료 편성 시, 대표 사례 선정시 고민 필요
-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계성
- 내용 분담 제작 시, 사전에 조율 장치 마련
- 더 많은 검토 회의의 필요

실제 활용 현황 및 긍정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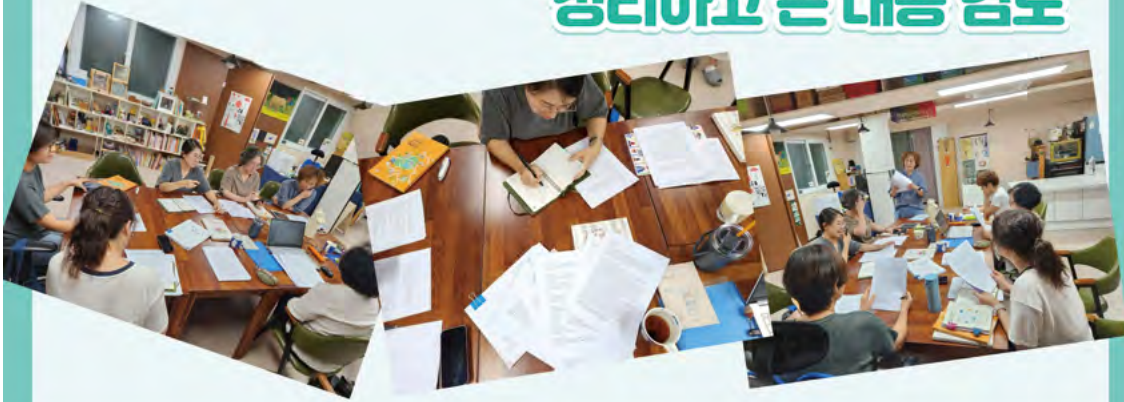
- 파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작은도서관 학교 운영 때 자료로 참고
- 화성시 2023 매뉴얼 작업에 파주 사례 참조하고 있음
- 진행 주 내부 담당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기회가 됨
- 매뉴얼 제작 후 파주시와 공유하는 시간 있음: 2022 제 18회 도서관학교 운영매뉴얼 Q&A

다시 제작한다면

- 〈내용〉
 - 운영철학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보완
 - 기존 파주 작은도서관 역사를 알도록 분량 확대 및 구체화
- 〈진행과정〉
 - 충분한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
 - 업무 협의 회의 횟수 늘려야

나눠 쓰기 사~이~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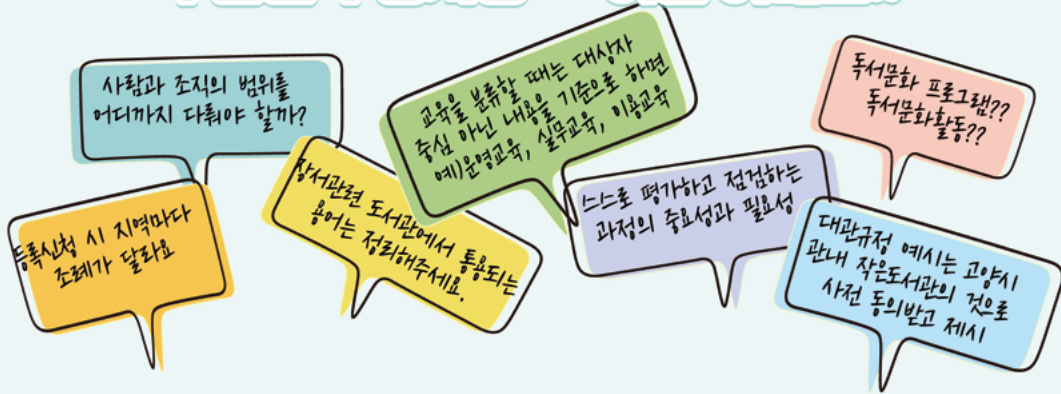
정리하고 쓴 내용 검토



들어가는 글에서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작은도서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여덟 명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니 간단하겠지 생각했지만, 여덟 개의 결이 존재하고 여덟 개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시간이 모이고, 누없이 썼다 지운 글자들이 모이니 점차 매뉴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분별 수정사항~~이건 어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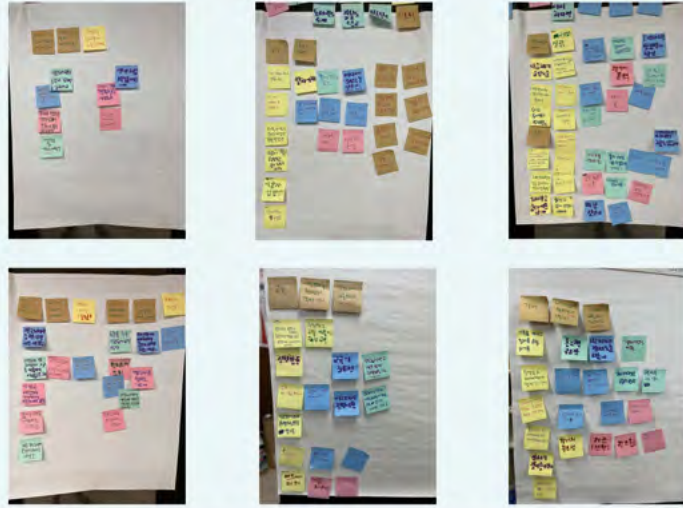


시작하는 작은도서관의 관점으로~~ 운영매뉴얼의 톤과 방향 재설정



04 워크샵

시작하는 작은도서관의 관점으로... 운영매뉴얼의 틀과 방향 재설정



2주간 다시 쓰고 공유하기
1주간 내용 검토하고
또 회의

05 수정회의
06 또 수정회의

수정작업 1차 - 9월 18일
수정작업 2차 - 10월 16일



들어가는 글에서


누구나 있을 그 첫 시작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도움받을 끈도, 마땅히 물어볼 사람도 없었던 때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했던 경험들을 나누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쉽게 쓰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쉬운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벅을 것은 넘자 했는데 그만큼 충분한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매뉴얼이 마중물 한 그릇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책상 위에 꽂아두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뒤적거려보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7 또또 수정회의

수정작업 3차 - 10월 30일
또또또 수정하고
편집 들어갑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고
10월 18일								수정작업 1차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수정작업 3차





같이 만난 횡수: 7회
같이 만난 시간은
22시간 X 8명 = 176시간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만들기' 도전을 하면서 우리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지금 타성에 젖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 지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경험을 정리하고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배웠고,
 여럿이 함께 뭔가 하는 경험도 새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3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양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누구나 시작이 있습니다.
 화려하거나 완벽할 리 없는 시작이지만,
 조금 더 담대해지시길,
 조금 더 치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소개

양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는 2022년 결성된 협의회로 양주시 작은도서관 중, 24개소 작은도서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양주시의 작은도서관은 여러 작은도서관이 구역별로 연합회가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런 작은도서관들을 한 목소리로 모으기 위해 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권역	소속 작은도서관
1권역 삼송, 고읍	[자이작은도서관연합회 활동 중] 글마루, 꿈모리, 도란도란, 반딧불이, 숲속, 자이초록, 푸른, 푸른꿈
2권역 회천3동	[회천3동작은도서관연합회 활동 중] 꿈드림, 동안, 은동, 주원, 청담
3권역 회천2동, 백석	글벗, 백석한승, 북소리, 새싹, 양주한승, 키움, 해외달, 현진숲속
4권역 옥정	[옥정작은도서관연합회 활동 중] GS제이드웰, 너나들이, 율정마을

2022년 가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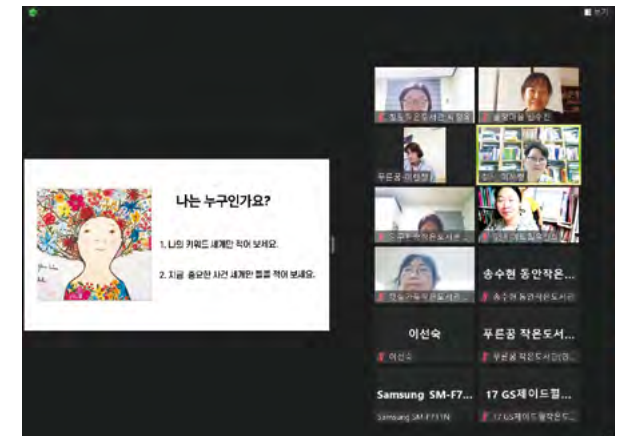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 작은도서관의 자원활동가가 교체되거나 개관한 작은도서관이 증가하고, 대면으로 회의를 하지 못하면서 서로를 잘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각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고자 자원활동가들끼리 소통하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여 '스스로'아카데미에 지원하였습니다.

2. '스스로' 아카데미 진행 방식 및 내용

(1) 워크숍 : 1~2회차

진행 방법	[비대면] 거리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고! 한 사람이 발언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선택의 이유
진행 강사	[이혜령 강사님] 작은도서관 운영의 경험이 있으시고 즐겁게 독서 토론 진행이 가능하셨던 강사님! 특히,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반응을 잘 해주셔서 말이 술술~나오는 마법이 느껴졌던 시간
키 워 드	[나의 관심사 / 나와 작은도서관 / 우리 작은도서관의 히트 프로그램] 자원활동가분들의 "나"라는 사람을 알고, "작은도서관"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



(2) 워크숍: 3회차

내 용	[프레드릭을 읽고 독서토론하기 - 실무] 이론으로만 배웠던 독서토론을 자원활동가가 참여자로 참여 진행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며, 서로 다른 시각으로 그림책을 해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
-----	---



(3) 탐방

일시 / 장소	9월2일(토) / 고양시 대한민국 독서대전
왜 필요했나?	[타 도시 행사의 벤치마킹] 매년 양주시 북페스티벌에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시야 넓히기
후 기	무척이나 더웠던 날이었지만 대단위의 출판사와 책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작가와의 만남, 행사 진행의 세밀한 부분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4) 친분나눔

내 용	비대면으로만 봐 왔던 서로를 직접 만나 친분 나누기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에서 이번에는 참여자로 힐링 데이 경험
후 기	공식적인 대화가 아닌 개인과의 대화로 평소 궁금한 내용이나 애로사항을 조용히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 매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편히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



3. 스스로 아카데미 진행 후 공부계획과 앞으로의 계획

'스스로' 아카데미 진행 느낀 점	좋은 모임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의 중요성을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다시 한 번 되새겼고, 협의회를 이용한 소모임의 필요성을 느꼈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진행했던 진행자의 입장]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협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소모임 준비를 마련할 계획 - 협의회 회의 전 또는 후에 하나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참여한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계획

4. 참여자 후기

'스스로' 아카데미는 어떤 의미였는가?

- 새로운 경험이 됨-교육을 통해 내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 보고, 스스로를 토닥여줄 수 있었던 시간
- 같은 고민을 하는 자원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기회
-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에 대한 도움이 됨
- 비슷한 마음의 너와 내가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
- 작은도서관의 미래에 대해 공유할 수 있었음

작은도서관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 다양한 경험을 직접, 간접적으로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므로
- 이웃과 밀접해있고 사람, 책,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는 공간이 작은도서관이므로
- 활동가들이 자기계발을하고,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하기에
- 작은도서관이 나아갈 길과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므로
-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지금 우리도서관은
2023년 스스로 아카데미

1 양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는?

- 2022년 결성
- 2023년 현재 가입 회원 : 24개소 작은도서관 (활동 중 16개소)
- 지역으로 4개 권역 구분

어디 작은도서관 활동가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고민은 무엇인지?

권역	작은도서관명
1	1 금마루
2	1 장모리
3	1 도란도란
4	1 반딧불이
5	1 숲속
6	1 자이로록
7	1 푸른
8	1 푸른꿈
9	2 광도림
10	2 동안
11	2 은도
12	2 주원
13	2 정당
14	3 글벗
15	3 박석환순
16	3 북소리
17	3 새싹
18	3 양주환순
19	3 카울
20	3 에와달
21	3 열진솔속
22	4 GS제이드림
23	4 너나들이
24	4 돌정마을

2 사업계획 (초기)

일시	내용(구체적인 강좌명, 형식 등)
8/24(목) 10:00 ~12:00	1. 강의명 : "우리 작은도서관" 1회차 2. 형식 : 워크숍 3. 강의 내용 : 책, 나의 이야기 (그림책을 이용해 나의 이야기 나누기) 4. 장소 : 옥정호수도서관 (예정) 5. 대상 :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운영자 15-20명
8/24(목) 19:30 ~21:30	1. 강의명 : "우리 작은도서관" 2회차 2. 형식 : 워크숍 3. 강의 내용 : 책, 나의 이야기 (그림책을 이용해 나의 이야기 나누기) 4. 장소 : 비대면(Zoom 이용) 5. 대상 :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운영자 15-20명 (1회차 참여자 제외)
8/25(금) 19:30 ~21:30	1. 강의명 : "우리 작은도서관" 실무편 2. 형식 : 워크숍 3. 강의 내용 : 작은도서관 운영 실무 (특수 모임 만들기, 작은도서관 협력 방법 등) 4. 장소 : 비대면(Zoom 이용) 5. 대상 :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운영자 15-20명
8/31(목) 10:00 ~12:00	1. 강의명 : "우리 작은도서관" 4회차 2. 형식 : 워크숍 3. 강의 내용 : 오감을 구성하여 "달밤"을 하고 싶은 교양시의 도서관/책방 조사하여 계획 세우기 4. 장소 : 옥정호수도서관 (예정) 5. 대상 :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운영자 20-30명
9/2(토) 09:30 ~17:00	1. 강의명 : "우리 작은도서관" 달방편 2. 형식 : 견학 3. 강의 내용 : 특색있는 도서관/책방 탐방 4. 장소 : 교양시 도서관 및 독립 서점 탐방, "대한민국독서대전교양" 축제 참여 5. 대상 : "우리작은도서관은" 프로그램 가입여자 40명

- 활동: 8~9월 (총 5회)
- 1회&2회차 : 동일 내용, 시간대와 장소 변화
- 3회차 : 비대면 실무
- 4회차 : 계획 세우기
- 5회차 : 축제 탐방

2 사업계획 (변경)

일시	내용(구체적인 강좌명, 형식 등)
8/24(목) 19:30 ~21:30	1. 강의명 : "우리 작은도서관" 1회차 2. 형식 : 워크숍 3. 강의 내용 : 책, 나의 이야기 (그림책을 이용해 나의 이야기 나누기) 4. 장소 : 비대면(Zoom 이용) 5. 대상 :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운영자 15-20명
8/25(금) 19:30 ~21:30	1. 강의명 : "우리 작은도서관" 2회차 2. 형식 : 워크숍 3. 강의 내용 : 책, 나의 이야기 (그림책을 이용해 나의 이야기 나누기) 4. 장소 : 비대면(Zoom 이용) 5. 대상 :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운영자 15-20명
9/2(토) 09:30 ~17:00	1. 강의명 : "우리 작은도서관" 달방편 2. 형식 : 견학 3. 강의 내용 : 특색있는 도서관/책방 탐방 4. 장소 : 교양시 도서관 및 독립 서점 탐방, "대한민국독서대전교양" 축제 참여 5. 대상 :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운영자 15-20명
10/12(목) 10:00 ~12:00	1. 강의명 : "우리 작은도서관" 친분나눔 2. 형식 : 강좌 3. 강의 내용 : 드라이블러워/에어잔디기를 통해 이야기 나누기 4. 장소 : 울정마을 작은도서관 5. 대상 :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운영자 15명
10/19(목) 10:00 ~12:00	1. 강의명 : "우리 작은도서관" 실무 2. 형식 : 워크숍 3. 강의 내용 : 프로젝트식을 활용한 그림책 이야기 나누는 방법 체험 4. 장소 : 비대면(Zoom 이용) 5. 대상 :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운영자 15-20명

- 활동: 8~10월(총 5회)
- 1회&2회차&실무 : 비대면 이용, 서로 이야기 나누기
- 탐방 : 축제 탐방(자녀 포함 가능)
- 친분나눔 : 추가 항목 : 나를 위한 힐링데이

3 사업 활동 - 비대면 1



나에 대해 이야기하기
나의 키워드
중요한 것

3 사업 활동 - 비대면 3



독서토론 실무

3 사업 활동 - 비대면 2



도서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필요한 것
히트프로그램

3 사업 활동 - 탐방 (9월2일)



3 사업 활동 - 친분나눔 (10월12일)



4 사업 종료 이후 - "워크숍" (10월31일)

시민과 함께 토착하는 양주

양 주 시

수신 관내사립작은도서관 58개소
(경유)

제목 2023년 사립작은도서관 워크숍 추진 알림

1. 귀 작은도서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년 사립작은도서관 워크숍」을 운영하여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활동가의 역량 강화 및 사기를 진작하고 사립작은도서관 건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 2023. 10. 31.(목) 09:00 - 18:00
 나. 장 소 : 경약용 유격지(경기도 남양주, 남이섬(강원도 춘천시))
 다. 신청기간 : 2023. 10. 13(금) - 27(금)까지
 라.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메일(bib@korea.kr) 제출
 마. 참석대상 :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활동가 38명(신청순)
 ※ 2023. 10. 18.(수)까지 사립작은도서관 당 2명 신청 가능
 ※ 2023. 10. 18.(목) 오전 09:00 이후 작은도서관별 인원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바. 인 출 지 : 권용주(전 세종대 국문학과 교수)
 사. 내 용 : 경약용 유격지, 실학박물관, 남이섬 국제어린이도서관, 나미릉루프 갤러리 및 다양한 문화컨텐츠 체험

힐링 워크숍

4 사업 종료 이후 - "양주시 북페스티벌" (10월9일)



4 사업 종료 이후 - "스스로 아카데미 후기"

스스로 아카데미에 참여한 당신! 스스로 아카데미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작은도서관 활동가로서 느끼는 장만정도 함께 얘기 나누고 작은도서관의 미래에 대해서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할지 도움이됨

교육을 통해 삶의 역정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걸 보며 스스로 잘했다고 토닥토닥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같은 고민에 있는 자원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결함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작은도서관이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은도서관이 나아갈 길과 어떻게 발전해 나아갈지를 꾸준히 공부하고 탐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조인 봉사보다 자기개발과 취업에 도움

살아있는 시간내 배워야 살아있는 듯 합니다.

작은도서관은 이웃에 밀접하게 있는 곳이지요.

계속해서 자원활동의 관계 안에서 배우고 책을 통해 배우고 펼쳐지는 프로그램을 통해 또 조금씩 배우는 곳이 작은도서관이라 생각 합니다.

그렇게 차라리는 곳이 작은도서관입니다.

다양한 직책 혹은 간접적인 경험들 통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협력



2023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전국 작은도서관 모임



작은도서관 경영 아카데미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전국단위 경영아카데미-

09. 11	책이 삶이 되는 책의도시 전주, 작은도서관 우수사례 허미숙 전주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팀장 강좌 및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및 외 탐방
10. 24	도서관과 리서치(질적연구) 홍주은 진저티프로젝트 대표 온라인(Zoom)
10. 26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도서관 그리고 마케팅 김정민 제3의 시간 도서관장 온라인(Zoom)
10. 27	리서치 활용 및 실습 홍주은 진저티프로젝트 대표 온라인(Zoom)
10. 30	마케터가 본 작은도서관의 미래 김정민 제3의 시간 도서관장 온라인(Zoom)

1. 소개

작은도서관은 오랜 시간 지역주민의 일상에 독서문화의 씨앗을 뿌리고 민주시민으로, 독서가로 꽃을 피우도록 하는 공간이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독서문화 운동가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는 활동들이 있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더 이상 과거의 운동성만으로 작은도서관의 존속을 바라기엔 어려운 시대적 상황과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에게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 경험, 시장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시대의 독서문화 콘텐츠 발굴과 작은도서관 환경과 역할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작은도서관 리더들은 미래를 대비한 변화를 시도하고 앞서 공부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는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활동들로 도서관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작은도서관 서비스가 요구된다.

본 '스스로 아카데미'는 작은도서관 밖에서 경영자 또는 마케터, 연구자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도서관 마케팅, 도서관의 미래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듣고 작은도서관 경영에 접목하고자 했다.

스스로 아카데미 구성원은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관계자로 대표 천안시 성성푸른도서관장 박민주, 실무 성성푸른도서관 사서 하지원, 구리시 애기똥풀도서관장 한은희, 일산도서관장 박미숙, 제천 하소아동복지관내보물1호도서관장 백영숙,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이은주, 여주시 토닥토닥그림책도서관장 김동헌, 일산시 모당공원작은도서관장 김정희로 총 8명이다. 주로 경영학적 관점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심이 있거나 작은도서관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협회 임원들이 주로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개발과 연구 또는 다양한 토론의 장에서 스스로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확장되길 기대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도서관계에서 가장 뜨겁게 관심받고 있는 공간을 또는 일을 직업으로 삼거나 협업 파트너로 일했던 세 분의 강사를 모셨다.

강사로는 국내에서 도서관 관계자가 가장 많이 찾는 도시, 벤치마킹을 위해 탐방이 끊이지 않는 책의도시 전주시의 특성화 직영 작은도서관을 총괄하는 허미숙 작은도서관 팀장과 도서관의 새로운 공간과 콘텐츠를 기획하고 확장하고 전파하는 도서문화재단 씨앗의 제3의 시간 김정민 관장, 이들과 함께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내 전국 최초 트윈세대 공간 '우주로1216', 라이브러리 티티섬 등 실험적인 도서관이 설립되는 곳마다 이용자 리서치를 전담한 진저티프로젝트의 홍주은 대표를 모셨다.

2. '스스로' 아카데미 진행 방식 및 내용

첫 번째 강의는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의 허미숙 작은도서관 팀장이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 작은도서관 우수사례"를 주제로 전주시 직영 작은도서관의 조성과정, 활성화 정책 등 도서관 선진지로 발전하는 과정을 전하고 참석자들은 강의의 내용을 토대로 다른 지자체의 정책과 비교하고 과제를 논의하였다. 이 강의는 전주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전담하는 팀장이 직접 강의하고 탐방을 돕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단순히 구경하는 탐방이 아니라 배경과 조성되는 과정 사진과 이야기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철학과 사서들의 열정에 감동하고 공공기관의 공무원 사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시간이었다. 강의 후 참석자들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우주로1216을 살펴보고 공간을 담당하는 팀장의 세심한 안내와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학산숲속시집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 동문헌책도서관을 방문하였고 이 여정에 그림책 활동가에서 도서관 전문 안내자가 된 선생님이 함께하여 전주시 도서관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느끼며 설명을 들었다. 이번 강의와 탐방에는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경기남부지부와 협력하여 해

당 지역 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한은희, 박정숙, 김동현, 권광선, 문후남, 손정민, 박민주, 하지원, 윤나영, 정의숙이 참석했다.



• 1강 전주시 작은도서관 우수사례 강연 및 탐방
강사 | 전주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작은도서관 팀장 허미숙



시 간 호	내 역
09:50-10:00	1. 전주시립도서관 소개
10:00-10:30	2. 우수사례 12팀
10:30-10:50	3. 작은도서관 운영활동 지원
10:50-11:00	4. 점심시간
11:00-11:30	5. 강연(1시간)
11:30-11:50	6. 활동실용도서관
11:50-12:00	7. 다목적형도서관
12:00-12:30	8. 디지털도서관
12:30-12:40	9. 통영도서관
12:40-12:50	10. 인사말
13:00	11. 인사말

참석자(with 경기남부지방 도서관 운영자)

이름	소속
한은희	경기도 구리시 예기동출판도서관
박정숙	경기도 성남시 책이랑도서관
김동현	경기도 여주시 토덕도덕그림책도서관
권광선	경기도 여주시 아람과학공동체 여주시립도서관
문후남	경기도 수원시 책담담작은도서관
손정민	경기도 이천시 작은도서관 with
박민주	충청남도 천안시 삼정유문도서관
하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삼정유문도서관
윤나영	세종특별자치시 탐지기마을 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
정의숙	세종특별자치시 탐지기마을 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

• 1강 전주시 작은도서관 우수사례 강연 및 탐방



전주시의 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왜 전주시가 도서관의 도시, 많은 도서관 관계자들이 찾는 관광산업으로서의 도서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지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또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한 운영자들이 서로의 지역에 도서관 정책과 작은도서관 지원 등에 대해 열정적으로 논의하고 사례를 비교하며 과제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강의는 홍주는 진저티프로젝트 대표의 “도서관과 리서치”를 주제로 질적연구 방법과 다양한 연구사례를 들었고 실제 인터뷰를 과제로 제출하여 패들렛을 통해 참여자들의 인터뷰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고 강사님의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 강의는 온라인(Zoom) 형식으로 2회 개 최되었으며 박민주, 백영숙, 한은희, 신현미, 하지원, 박미숙, 김정희, 김동현, 이은주가 참석했다.

이 강의를 통해 참여자들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interview, photo voice, probes, reflection tour, co-design(LEGO), shadowing, journey map, persona 등 질적연구 방법에 대해 배웠다. 또한 실제로 진저티프로젝트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사례를 들으면서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직원, 활동가들의 조직 활성화나 이용자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 발굴 등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확보할 수 있었다.

패들렛을 활용하여 인터뷰 실습 과제를 수행하고 홍주는 대표의 피드백과 서로의 인터뷰 대상과 주제, 내용에 대해 나누는 시간에는 참여자들의 도서관 운영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해법을 찾기 위한 다른 관점의 접근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터뷰 과제를 수행하면서 도서관 운영을 잘하는 방법 중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 문제해

• 2강 도서관과 리서치(질적연구)
강사 | 진저티프로젝트 대표 홍주는



참석자 후기

- 질적 연구에 대해서 방법을 알고 공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 방법들이 많은데 나는 남로 먹으려고 했구나 반성을 함
- 인터뷰를 안 해보니까 대상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 모르고 내 질문이 뭔지도 몰라서 연구할 때 망친 경험있음
- 코크리에이션 팀을 하기에는 작은도서관이 큰 프로젝트를 하거나 조직이 크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예도 불구하고 동료(코워커)와 타임라인을 정하고 각자 역할을 정해 솔직하고 정확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해 볼 수 있는 팀을 만났음
- 도서관이 활성화하려면 이용자들의 성향이나 생각들을 잘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음
- 강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봄
- 도서관의 본연의 역할을 잘 함께 갖고 갈 수 있을까 고민 중에 하나임
-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파악해서 잘 적용하는게 중요함을 느낌

마케터가 생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점을 들어보고 참고하여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였다. 분명 도서관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 작은도서관의 마케팅 전략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평소 작은도서관과 도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강연들만 듣거나 관계자들만 만나면서 우리 스스로 자칫 편협하거나 협소한 사고체계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더 다른 분야, 더 전문가를 찾아 영감과 인사이트를 얻고 싶었다. 그러나 적은 구성원으로 배우는 모임을 꾸려서 강사비를 마련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작은도서관 경영아카데미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무척 궁금했던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렵פות이 찾게 된 것이다.

전주시의 도서관이 이렇게 멋진 모습인 것은 분명히 공간기획, 인테리어, 가구와 조명, 소품, 북큐레이션된 책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업체 또는 공간 디자이너와 큐레이션 전문가 등이 외부인으로 참여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직접 사서들이 가구와 조명, 이미지 등을 수집하고 직접 서울의 조명상가를 돌며 고르는 수고를 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다.

제3의 시간 도서관처럼 멋진 공간과 운영은 든든한 자본을 바탕으로 멋진 건물과 커리어 좋은 인재들이 있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했다. 그들의 치열한 현장을 오해했다. 끊임없는 새로운 콘텐츠가 기획되고 확장되고 전파시키는 공간,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의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고 어설픈 동경에서 벗어나 실천해 볼 수 있는 귀한 사례들을 얻었다.

앞서 언급된 우주로1216과 티티섬 등 공간과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이용자의 욕구를 탐구하는 진저티프로젝트는 어쩌면 가장 이용자 중심의 연구를 가장 미세하고 분명하게 잘 해내는 조직이다.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콘텐츠를 개발했던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고 작은도서관에서 접목할 수 있는 사례도 들을 수 있어서 “어떻게 이런 콘텐츠가 만들어졌지”라는 의문들이 실타래처럼 풀리는 순간을 경험했다.

3. 스스로 아카데미 진행 후 공부계획과 앞으로의 계획

관심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고 소통하며 깨닫게 된 것과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이론과 사례, 실습, 논의 과정은 더 똑똑한 나, 발전된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되도록 하는데 영감과 인사이트를 주었다. 새로운 관점으로 작은도서관 운영방안을 되짚어 보게 했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배운 것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기술을 배운 시간이었다. 본 스스로아카데미 구성원 대부분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기대한다.

구성원을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 및 경영과 마케팅에 관심 있는 자들로 초기에 세팅하여 추후

별도의 홍보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참여자의 소통을 위한 오픈채팅방과 강연 내용과 및 사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밴드를 임시로 개설하여 운영했다.

사업선정 전 계획단계에서 사업에 선정이 안 될 경우에 대한 불안감에 작가를 섭외하는데 부담이 컸고 사업선정 후 애초 계획과 다르게 강연자의 일정 및 구성원의 일정을 고려하여 재수정하고 섭외가 되지 않은 강사를 대신해 변경계획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어려운 점이 있었다.

더욱이 참여자 대부분이 작은도서관 관장으로 1인 체제의 운영 속에 실무를 담당해 스스로아카데미에 온전히 집중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을 기꺼이 내어 참석하는 노력을 보여주었고 구성원이 아니지만 강연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참석해 열심히 경청하고 감탄한 작은도서관 관계자도 있었다. 또한 스스로아카데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대표자(기획자) 및 실무자가 이 스스로아카데미에 대한 절실함과 배움에 대한 열망이 높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배움의 연속으로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취합하여 경영과 마케팅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 공간, 디자인, 협업을 위한 도구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하고 전문가와 협력하는 사례를 만들어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전국의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더 관심 있는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터디그룹으로 발전시켜 정기적인 공부하는 모임을 가져 향후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표준 프로토콜을 개발하거나 작은도서관들에게 실용적인 지침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보고 깨달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변화에 민감해야 할 작은도서관 운영자 또는 경영자의 과제이다.

한 조직을 책임지는 경영자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마케터가 바라보는 책 읽는 시장, 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시선, 태도, 관점, 방법으로 도서관과 이용자를 이해하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영감과 래퍼런스의 자료를 얻었다.

우리들의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한 배움은 모르고 막연했을 때의 두려움을 떨쳐내게 했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대한 용기를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 배운 것을 도서관 운영에 적용한다면 공간을 사람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운영자로 성장할 것이고 조직 구성원과 이용자를 위한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관계자들은 도서관 밖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도서관을 미래에 걸맞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새로운 영감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아카데미는 독자와 함께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작은도서관이 미래의 독서문화를 선도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 배우기 전과 후의 다른 나를 만날 수 있게 기회를 준 스스로아카데미에게

구성원

신청단위

전국단위

대표자
박민주 성성푸른도서관
실무자
하지원 성성푸른도서관

한은희 애기똥풀도서관
박미숙 일산도서관
백영숙 하소아동복지관 내보물1호도서관
이은주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김동현 토닥토닥그림책도서관
김정희 모당공원작은도서관

- 1강 전주시 작은도서관 우수사례 강연 및 탐방
강사 | 전주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작은도서관 팀장 허미숙



일표(안)

시 간	유 형	내 용
9:55-10:00	주	전주시립도서관 및심 도적
10:00-10:30	30	휴우로 1216
10:30-12:00	90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3
12:00-13:00	60	점심식사
13:00-13:30	30	이동서비스
13:30-14:00	30	학산술속도서관
14:00-14:30	30	이동서비스
14:30-15:00	30	다가여행차도서관
15:00-15:10	10	이동서비스
15:10-15:40	30	동문헌책도서관
15:40-16:00	20	이동서비스
16:00		전주시립도서관 퇴장

참석자(with 경기남부지부 도서관 운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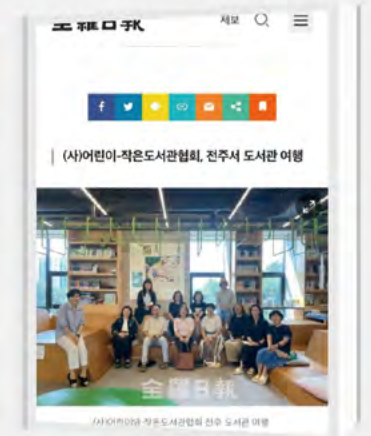
이름	소속
한은희	경기도 구리시 애기똥풀도서관
박정숙	경기도 성남시 책이랑도서관
김동현	경기도 여주시 토닥토닥그림책도서관
권광선	경기도 여주시 마을교육공동체 여주사람들
문후남	경기도 수원시 해남달남직은도서관
손정민	경기도 이천시 작은도서관 with
박민주	충청남도 천안시 성성푸른도서관
하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성성푸른도서관
윤나영	세종특별자치시 범지기마을 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
정희숙	세종특별자치시 범지기마을 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

순서

- 1강 책의도시 전주, 작은도서관 탐방 및 강연
- 2강 도서관과 리서치(질적연구)
- 3강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도서관 그리고 마케팅
- 4강 리서치 활용 및 실습
- 5강 마케터가 본 작은도서관의 미래

추진 내용

- 1강 전주시 작은도서관 우수사례 강연 및 탐방



- 4강 리서치 활용 및 실습
강사 | 진저티프로젝트 대표 홍주은

남자 중학생들과의 'PC방' 인터뷰 (서문, 신문, 도근)

시간	구분	내용 (제목, 연도, 발행처)	인터뷰어	학부 담당
6:30	PC 방 설립	도근 1997년 12월 12일자 '도근신문' 1면 10행	홍주은	홍주은
6:35	지역별 PC방	2005년 11월 10일자 '도근신문' 1면 10행	홍주은	홍주은
6:40	지역별 PC방	2005년 11월 10일자 '도근신문' 1면 10행	홍주은	홍주은
6:45	지역별 PC방	2005년 11월 10일자 '도근신문' 1면 10행	홍주은	홍주은
6:50	지역별 PC방	2005년 11월 10일자 '도근신문' 1면 10행	홍주은	홍주은
6:55	지역별 PC방	2005년 11월 10일자 '도근신문' 1면 10행	홍주은	홍주은
7:00	지역별 PC방	2005년 11월 10일자 '도근신문' 1면 10행	홍주은	홍주은

#남자중학생들과의 PC방 인터뷰
#도근신문
#도근신문
#도근신문

#질적연구, 마케팅, 기획, 정성적 데이터, 연구방법, 인터뷰, 피조사, 인사이트 루어, 포토 보이스, 프로브 방식, 팀별 기획, 인터뷰의 요소, 인터뷰 기록의 중요성, 좋은 인터뷰의 조건, 도서관 이용자 분석,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스텝, 질적 연구의 특징과 장점.

참석자 후기

- MZ 세대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나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음
- 인터뷰라는 것이 되게 객관적으로 존재를 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라는 생각을 했고 듣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함
- 인터뷰를 하면서 문제의 지점을 발견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순간이던데서 오늘 하루 안에서 좀 반박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음
- 질문의 연결성이 부족해서 질문을 잘못한 것 같고 질문자의 객관적이고 공평적인 질문 계획을 세워 치밀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음
- 인터뷰를 통해 해결사에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함

성과

-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하는 기회(그들에게 작은도서관에 대해 관심 갖게 된 기회였을 것)
- 도서관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습득(업무일지, 정성데이터수집방법, 질적연구 방법 등)
- 다양한 관종과 경험을 가진 구성원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고민을 엿보는 기회
- 함께 작은도서관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

배운점

- 동아리를 만들듯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을 미리 파악하고 소모임을 진행해 본 후 할 것
- 강사는 사업선정 후 컨택하고 계획서에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음(선정전 컨택했다가 선정안되면ㅠㅠ)
- 이 공부 가 결실하고 가장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
- 너무 바쁜 사람들은 지양할 것

- 5강 마케터가 본 작은도서관의 미래
강사 | 제3의시간 도서관장 김정민

저에게 핵심 키워드를 뽑으라면,

#실현실 **#개별화** **#(정성)데이터**

앞으로 더욱 필요해질 도서관 실현은? 우리가 가장 결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우리는 어떤 실질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가?

운영자가 열정,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앞으로 사회적, 경제적, 도서관이 갖게 될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마케팅, 세대별 차이, 비대면 서비스, 시립도서관의 고객 파악, 작은도서관의 역할 확장,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 선정, 작은도서관의 강점과 장점, 작은도서관의 타겟 고객, 작은도서관의 포커스, 동아리방의 필요성, 작은도서관의 특화 서비스, 우리 도서관 이용자의 동사 행위, 영유아 가정, 작은도서관의 커뮤니티 공간 기능 회복, 개별화의 중요성, 공간의 주체성, 작은도서관의 이용자들, 작은도서관의 환경, 작은도서관의 차별점, 작은도서관의 데이터, 지역 청소년을 위한 데이터 수집,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고민, 미래

다.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간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공간명	특징	장점
공공도서관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 접근성 높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시립도서관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특화 서비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민간도서관	특색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독창적인 서비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개인도서관	개인적인 취향과 필요에 맞는 공간을 제공한다.	맞춤형 서비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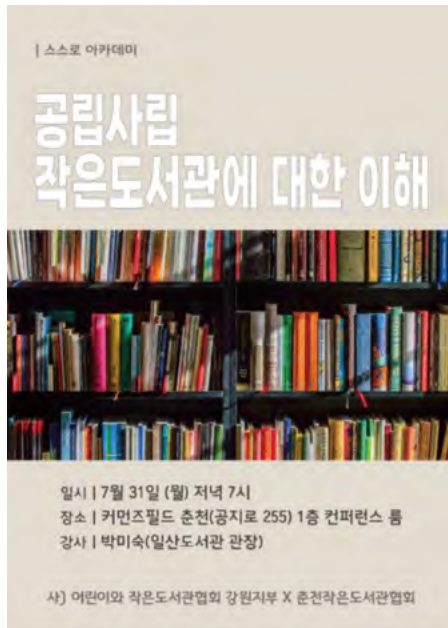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23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춘천시 작은도서관협의회

스스로 공부하고 길을 찾는 지기(知己)들의 모임



춘천작은도서관모임은 올해로 2년째 <스스로 아카데미> 모임을 진행하며 한층 결속력이 강해지고 있다. 춘천 작은도서관협회 회원 도서관 중 정말 '스스로 공부하는 도서관 활동가를 위한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올봄부터 춘천작은도서관협회 교육분과 모임 중심으로 활동을 제안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 춘천의 작은도서관들은 춘천시 최초의 작은도서관이었던 꾸러기어린이도서관(2005년 설립)부터 뒤편어린이도서관, 앞장도서관, 스무숲도서관 등 2008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시기를 거쳐 춘천시 18개 도서관 중 13개의 도서관이 소속된 <춘천작은도서관협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운영해오고 있다. 도서관 마을 운동, 어린이도서연구회 활동, 담작은도서관 설립 활동까지 크고 작은 경험들을 축적해온 우리는 어느덧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50대 관장들이 주를 이루는 환경이 되었다. 내 아이, 동네 아이 할 것 없이 문턱이 낮은 작은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지금껏 달려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책을 사랑하고 도서관을 사랑하는 시민들, 어린이들을 잘 만나왔는지 가끔 회의가 들기도 하고 힘에 부치기도 한다. 도서관 활동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야기를 가감 없이 나눌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아카데미> 문을 두드렸고, 올해 2년차가 지난 지금 지역에서 스스로 모임을 기획하고 있다.

1. 스스로 책모임 먼저 시작하자

2022년 한 해 전국 작은도서관 동향과 선진지(티티섬) 견학까지 진행하면서, 뭔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책을 읽고 토론하는 문화를 확산하자고 의견이 제시 되었다. 도서관 관장과 도서관 활동가들은 책을 정말 많이 읽을까?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그림책 위주로 독서문화활동을 펼친 우리들이지만, 정작 다른 분야의 책들은 잘 읽지 못했다.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어디까지 더 할 것인가? 가까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춘천시는 매년 연초에 도서관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조금이 차등으로 지급되다 보니 각 도서관들은 교육 이수 등에도 민감할 수 있다. 그래서 평가 아니더라도 정말 토론하고 책읽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자율적인 모임을 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처음 8명의 도서관 활동가가 모였다. 모임의 주선자였던 작은도서관 caru, 뒤편도서관, 스무숲 도서관, 책날개 도서관, 꿈마루 도서관 관장과 운영위원, 사서활동가들이 모여 책을 읽었고 그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도서관은 도시의 거실이다.”

이 말이 내포한 모든 것이 이 책의 주제가 아닐까 싶다. 사서에 대해 '영혼이 있는 검색엔진'이라고 말하거나, 청구번호와 추천 도서에 얽힌 다양한 시선들을 보며, 결국엔 도서관 운영자와 사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과 집종의 도서관 철학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과거 춘천 작은도서관협회가 태동하고 전국에 작은도서관 열풍이 불었을 때 가장 많이 회자 되었던 것이 빌게이츠였다. 빌게이츠 서사가 설득력 있어 보였던 것은 성공한 부자가 유년시절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였을까요? (한국사회는 유명한 부자의 서사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되는 사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사서의 역할이 도서대출반납 만이 아니라 '참고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지역주민의 니즈에 대응하고, 평생을 도서관과 함께한 할머니의 장례식을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등 제도와 원칙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도서관 문화였다.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정말 좋아하는 '덕후'가 하는 도서관+지역운동에 생각해보았습니다. 처음 도서관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린 초등 자녀를 데리고 마을의 굶은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때의 나



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다를까? 내가 아직도 작은도서관에 몸담고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이 공감하거나 마음이 찡해지거나, 우리도서관에 이런 걸 적용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은 아직도 '작은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완전한 장년의 춘천작은도서관들이 다시금 활기를 띄고 더 멀리 보고 같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 2023년 7월 10일 1차 책모임 토론발제문

 **〈로컬의 발견〉** 이시아마 노부타카 지음/ 다가능연구소 펴냄

제3의 장소와 관계인구에 대한 논의들은 문화계 중심으로 널리 토론되고 있지만, 정작 작은도서관들은 '제3의 장소', '관계인구'라는 말도 처음 듣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이 책은 제1의 공간인 집, 제2의 공간인 직장과 다른 제3의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누구나 평등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찾기 편하고, 단골이 있으며, 본인이 눈에 띄지 않고, 즐길 마음으로 찾는 공간. 우리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작은도서관은 제3의 장소 중 목적교류형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영리법인, 독서회, 학습회, 커뮤니티 카페 등 지역활동 목적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이는 장소로 말이다. 로컬의 발견을 읽으며 사실 사례들은 이미 지역에서도 시도했던 사업들도 있지 않은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좀 더 구체화 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마을 내의 공동체 확장을 위해 가와자키 100인 회의처럼 지역사람들이 유연하게 연대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면 재미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J월드의 운영원칙처럼 '누구나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다.'는 뭔가 감동적인 멘트이기도 했다. 도서관 활동을 하는 강사들이 어느 순간 자격증 증빙이 필수가 되어버리면서 이전보다 팍팍한 느낌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열린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야기가 이어졌다. 스스로 아카데미에서 추천하지 않았다면 결코 읽지 않았을 〈로컬의 발견〉. 새로운 책을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발견한 하루였다.

- 2023년 8월 21일 2차 책모임 후기



 **〈사서일기〉** 앨리 모건 지음/ 문학동네 펴냄

 **〈로컬씨, 어디에 사세요?〉** 서진영 지음/ 온다프레스 펴냄

마지막 3차 책모임은 기존 모임보다는 확대되어 10월 마지막 주 춘천작은도서관협회 모임과 함께 진행되었다. 앞서 읽은 책보다는 보다 대중적이고 가벼운 에세이라서 2권의 책을 함께 살펴보았다.

〈사서일기〉는 전직 열혈 사서, 현직 도서관 애호가, 우울증과 PTSD, 자살충동으로 치료에 전념하던 중 지역 도서관에 보조사서로 취직한 앨리모건의 에세이입니다. 현실반영 300% 에세이이는데 작은도서관 활동가로서 현실적인 갭은 있지만 정말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미국도서관의 사례이기 때문에 한국의 도서관 문화와 비교할 수 있었고 취약계층과 빈곤층을 위해서도 열린 공간인 도서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출 이력도 삭제하는 도서관이라는 부분이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지식저장고이자 진료소이다.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두뇌이자 맥동하는 심장이며, 공기처럼 필수적이다.” (P.388)

〈로컬씨, 어디에 사세요?〉는 '나의 거주지찾기 프로젝트 - 춘천편'으로 30대청년 1인가구인 서진영 작가의 르포 글입니다. 온다프레스와 춘천문화재단의 협업으로 '외부자의 시선으로 춘천 엿보기'를 아주 심도있게 다루었다. 6개월간 춘천을 드나들며 걸어서 도시를 살펴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취재원 탐색, 춘천시의 행정정보와 기사 등을 살살이 뒤져서 독자에게 좀 더 객관적인 지역 정보를 제공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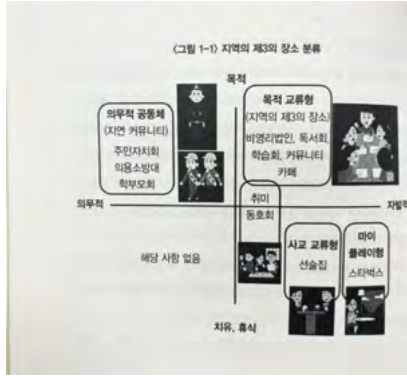
무엇보다 〈아이가 자란다〉 챕터에서 나온 담작은도서관과 어린이작업장 뚜루뚜는 우리 활동과도 연계된 지인들의 이야기여서 정말 재미있었다.

- 2023년 10월 30일 3차 책모임 후기

2. 작은도서관 동향 관련 특강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 -박미숙 일산도서관 관장(2023.07.31.)

타 지역의 경우 공립형 작은도서관이 들어선지 오래되었지만 2023년까지 춘천은 공립형 작은도서관이 생기지 않고 있다. 올해 춘천시립도서관 소식에 의하면 춘천시 관내에도 드디어 공립형 작은도서관이 2곳 들어선다고 한다. 민간사립형 공공작은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지역에서는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민간사립 공공작은도서관을 거쳐 공립도서관을 운영중



인 일산도서관 박미숙관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게 되었다. 박미숙 관장님의 특강은 첫 시작부터 달랐다. 강의 PPT에 큐알코드를 띄어놓고 각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도서관에 대한 생각들을 기입하도록 했고, 그 자리에서 익명이지만 서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공유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강의자리에서 의미있었던 것은 춘천작은도서관협회 회원들이 대부분 참가했고,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에 생기는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해 퇴계동 주민자치회 임원분도 참석하셔서 작은도서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다. 어떻게 호혜적인 관계로 서로 네트워킹 할 것인가 고민을 하기도 했고,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할까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다. 먼길 와주신 박미숙 관장님과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님, 임원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3. 모두가 기다렸던 선진지 견학

 <의정부 미술도서관/음악도서관/영어도서관> - 2023년 9월 21일

선진지 견학은 매 해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다. 일상에서 벗어나 도서관운 영자들과 긴 시간 사업에 쫓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성남의 <라이브리티티점>에 다녀왔을 때, 우리 지역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려 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재구성하는 것은 어떨까? 평소 이야기하지 못했던 말들이 터져



부라부라 떠나온 선진지 견학이었는데 견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춘천시립도서관 관계자들이 이런 곳을 같이 다녀야 할텐데.' 하는 생각이었다. 어차피 공공의 영역에서 적용할 부분이 더 많은 도서관들이었고,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다양한 영감을 받더라도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시립도서관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여졌다.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면서, 다음에는 춘천시립도서관과 함께 가는 선진지 견학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나왔다. 15년 넘게 작은도서관을 명예직으로 운영하면서 50대가 되어 건강이 좋지 못한 관장님들도 계시고 다들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들이 같은 견학을 떠나며 서로 속내를 이야기하기도 더 쉬웠던 것이다.

올해는 과연 화려한 도서관을 볼 것인가, 우리와 비슷한 도서관을 볼 것인가 고민이 많았다. 그러다가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의정부 특화도서관을 견학 신청하게 되었다. 애초 10월 중에 가보기를 희망한 도서관 활동가들이 많았는데 9월 21일을 제외하고 11월까지 일정이 없다는 의정부도서관 견학담당자의 말에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평소 가보고 싶었던 이들도 일정이 맞지 않아 가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다. 당일치기지만 의정부 미술도서관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했고, 음악도서관 견학담당자의 열정적인 견학 안내에 즐거운 마음이 들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과

4. 스스로 아카데미에 참여한 스스로 후기들

- 책 모임을 통해 견문이 넓어지는 것 같고, 함께 나누니 좋아요^^ 지역소멸에 관한 대안적인 모델들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 의정부 도서관의 방문은 무척 뜻깊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구나와 춘천에도 특화된 도서관이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음악도서관은 공원내에 있어 산책을 하듯 도서관을 방문할수 있고 누구라도 편안하게 음악

감상도 가능한 도서관이 너무 좋았습니다

- 누구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책을 읽고 참여하는 데 의미가 크다. 일을 하다보면 그 곳에 매몰되어 넓게 깊게 보기 어려운데,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선물해준 교육이었다. 특히, 의정부 특화도서관 견학은 직접 보는 즐거움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숙제를 안겨 주었다. 다음에는 좀더 멀리 가보기를 기대해 본다. 따로 그러나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자주 갖고 싶다.
- 도서관에 관련 책으로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읽어서 좋았습니다.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계기로 책 모임을 하면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현재 & 미래에 대해 각 도서관에 고민거리 등 소통의 시간을 갖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또한 특화도서관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춘천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일반 도서관 같이 똑같은 도서관이 아닌,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해 고생 많으셨고 2024년 스스로 아카데미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커먼즈필드에서 교육 받았을 때, 코로나 이후로 많이 달라진 작은 도서관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좋은 정보를 얻고 배움이 있었습니다~ 배운거 써먹기^^
종이접기를 하러 도서관에 자주오는 학생을 동아리 운영하게 해보았습니다~동생들과 웅기종기 모여 만나는 시간도 맞추고 동아리 이름도 만들고 ,, 도서관과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사정이 안되서 견학에 참석 못해서 아쉬웠답니다~
-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도서관 활동과들과 함께 읽었던 <도서관이 살아있다> 와 <로컬의 발견>은 지역에 기반해 활동하고 있는 저에게 춘천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집과 회사의 제3의 장소를 언급해준 '로컬의 발견'을 통해 마을에서의 공동체 역할에 대해 우리의 연결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 선진지 견학으로 다녀왔던 의정부의 미술도서관과 음악도서관 영어도서관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에게는 많은 부러움을 갖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화려하고 거대했던 미술도서관보다 공원에 자리 잡았던 음악도서관에서의 감동이 컸었습니다. '의정부'라는 지역의 특성을 심분 살려 음악도서관을 오픈하기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러번의 공청회를 거친 행정이 노력한 부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 스스로 아카데미는 제게 '즐거운 도서관 활동가 되기'를 알려준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길을 찾는 지기들의 모임

춘천작은도서관모임

知己(지기) -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

-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춘천작은도서관협회> 13개 도서관 중에 활동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지기 모임을 결성하고자 함.
- 함께 읽는 책 - 도서관이 살아있다. 로컬의 발견. 사서일기, 로컬씨 어디에 사세요?(총 4권의 책 토론)
- 대중강의: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박미숙관장)
- 의정부 미술/음악/영어도서관 선진지견학



7월10일(월) 작은도서관 caru 사진신청자에 한해 책을 드립니다. (사진 신청 6월 16일까지)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의 강원지부 X 춘천작은도서관협회

- “도서관은 도시의 거실이다.”
- 사서는 영혼이 있는 검색엔진
- 지역주민의 니즈를 파악하는 ‘참고서비스’
- 도서관 이용자였던 할머니의 도서관 장례식
- 책을 정말 좋아하는 ‘덕후’가 하는 도서관+지역운동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



일시 | 7월 31일 (월) 저녁 7시
장소 | 커민즈빌드 춘천(공지로 255) 1층 컨퍼런스 룸
강사 | 박미숙(일산도서관 관장)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의 강원지부 X 춘천작은도서관협회

춘천 작은도서관 모임 운영자& 사서 활동가가 오랜만에 다같이 모임. ^^



춘천 공립 작은도서관 움직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토론주제
 - 도서관 활동을 하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 나를 도서관에 남게 한 이유는?
 - 우리도서관이 앞으로 어떤 도서관이라면 좋을까?

도서관을 통한 제3의 장소, 관계인구



의정부 미술/음악/영어도서관 견학



- 지역에서 유연하게 만나기
- 일본의 사례를 통한 지역재생, 수평경력, 관계인구, 제3의 장소
- 가와자키 100인회의(끝이 있는 커뮤니티), J월드(누구나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다)



도서문화재단 씨앗



도서문화재단 씨앗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열심히 운영해 온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자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기금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가 주관하며 기금의 운영과 집행을 위해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 기금 자료집

2023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3년 12월 20일
글쓴이	2023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참여자,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발행처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디자인·제작	디자인센터 산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가길 8-7, 2층
전화	02-388-5933
팩스	02-388-5922
이메일	kidlib@smalllib.org
홈페이지	smalllib.org

※ 이 책은 코팅되지 않은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저작권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있습니다.

글쓴이나 발행처의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 전재하거나 sns·매체수록 등을 금합니다.